

강릉, 희소금속 실용화센터 설립

강릉시가 마그네슘과 리튬, 티타늄, 지르코늄 등 희소금속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소금속 실용화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강릉시와 포스코가 옥계 일원에 초경량 희소금속 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종합 지원기관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지원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희소금속 실용화 센터의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권역별 희소금속 실용화 센터를 설치해 희소금속 관련기업을 종합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희소금속 실용화센터는 2012-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대학, 신소재사업단, 마그네슘 연구조합, 포스코 등이 참여해 핵심기술 개발, 수요산업과의 연계체계 구축, 인력양성, 시험 및 분석장비 구축, 마케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학저널 2011/01/21>